

# 1. 통일신라시대

## 1) 불 상

### (1) 송광사 목조삼존불감(木造三尊佛龕)

송광사 목조삼존불감은 송광사에서 활동한 보조국사 지눌(1158~1210)의 염지불감(念持佛龕)으로 전하는 유물로서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다.

이 불감(높이 13.9cm, 지름 6.9cm)의 형태는 닫으면 위가 둥근 원통형이 되고 열면 세 쪽이 연결되어 있는데 중앙에 본존불을, 좌우에 보살상을 조각하였고, 세 쪽을 경첩으로 연결한 형식이다.

본존상은 석가모니불이거나 노사나불(盧舍那佛)로 볼 수 있으며 오른손은 시무외인의 수인(手印)을 결하고 있다. 법의는 통견이며 두 줄씩으로 된 음각의 옷주름이 나타나 있다. 또 본존 주위에는 합장한 승상과 보살·동자상·사자상 등이 조각되어 있다. 위쪽에는 천개가 있고 불단 아래에는 고사리 모양의 초문이 투각으로 장식되어 있다. 코끼리에 탄 좌협시상은 보현보살이고 사자에 탄 우협시상은 문수보살이다. 양쪽 보살상의 천개에는 비천이 날고 있다. 전체적인 조각수법은 매우 정교하고 세밀하며 각종 장엄 또한 화려하다. 조성시기는 통일신라 말경으로 추정된다.

이 불감과 구조나 양식에서 비교되는 목조불감이 일본 고야산(高野山)의 금강봉사(金剛峯寺)에 있는데, 일본의 밀교 진언종의 개조인 홍법대사(弘法大師) 공해(空海 : 774~835)가 806년 당나라에서 귀국할 때 가져왔다고 한다. 따라서 송광사 불감의 조상(彫像)에서 보이는 조각수법이나 양식이 당시 우리의 불상과는 다른 이국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일본 불감의 경우와 같이 당에서 전래됐을 가능성이 짙다. 그러나 그 전래시기는 알 수 없으며 다만 보조국사는 고려시대 때 사람이므로 그 이전에 전래된 불감이 국사의 염지불로 예배된 것으로 추정된다. 1962년 12월 20일에 국보 제42호로 지정되었다.

### (2) 금둔사지(金菴寺址) 석불비상(石佛碑像)

이 석불비상은 비신(碑身)과 같은 긴 네모꼴의 판석(板石)에 조각한 비상형식(碑像形式)으로 그 형식이 독특하다. 전체 형식은 대좌, 불신 그리고 보개(寶蓋) 3부분으로 구성(전체 높이 315cm)되어 있으며, 불신 뒷면의 상단에 4자의 명문과 공양상이 있고 하단에 코끼리상이 조각되어 있다. 불상은 원각불이 아니라 잘 다듬어진 긴 네모형의 판석(너비 84cm·두께 20.5cm, 불상 포함 두께 40cm·높이 213cm)에 돌을새김(양각)을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조각사적의의를 내포하고 있다.

첫째, 형식상의 특이점이다.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형식이 비상이란 점이다. 이처럼 유사한 형식의 불상은 이미 통일신라 초기에 충청남도 연기지역에서 조성되었지만, 완전한 비상의 형식은 이 상이 처음이라고 추정된다.

둘째, 비상 위에 올려져 있는 보개의 형식이 사각형이다. 이러한 형식은 관촉사(灌燭寺) 석조보살입상, 대조사(大鳥寺) 석조보살입상, 안국사지(安國寺址) 본존불, 익산 고도리입상, 파

주 용머리 향우입상, 김제 흥복사지 석불입상 등에서 볼 수 있다. 이들은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금둔사지비상과 조선시대에 조성된 김제 흥복사지 석불입상을 제외하고 모두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이다. 그러므로 현재의 자료에서 볼 때 노천불의 방형보개는 이 비상에서부터 나타나는 새로운 형식임을 알 수 있다.

셋째, 금둔사지 석불비상의 조성시기는 통일신라 하대인 9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. 이러한 근거는 상호(相好 : 얼굴의 형상)의 형식, 법의(法衣)의 계단식의문, 대좌의 연화문양식, 배면의 상단에 조각된 초두형 향로 등에서 볼 수 있다.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삼층석탑의 조성시기가 9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므로 이 편년은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된다.

넷째, 이 비상의 신앙적인 측면이다. 비상은 서쪽을 향하고 있으며 아미타여래의 수인을 결하고 있어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하고자 한 정토신앙과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그러므로 이 비상이 위치한 낙안 일대의 불교신도들이 단월세력이었을 것이며, 그들은 이 불상 앞에서 내세에 서방 극락정토로 화생하고자 불공을 드렸을 것이다. 이 비상이 조성된 9세기에는 주로 향마축지인상이나 지권인상이 압도적으로 많으나, 통일신라 초기에 왕성하게 조성되었던 아미타불상은 착장사(鑿藏寺), 불국사, 풍기(豊基) 비로사(毘盧寺) 등에서 간헐적으로 조성되었다. 9세기 정토신앙의 조상물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이 비상은 정토신앙의 조상물을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. 1988년 4월 1일에 보물 제946호로 지정되었다.

